

다향오리, 오리데이에 오리고기 최대 40% 할인 판매



국내 오리업계 1위 브랜드 다향오리가 5월 2일 ‘오리데이’를 맞아 다향오리 인기 제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했다. 오리데이는 오리업계에서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오리업체들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매년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다향오리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훈제슬라이스, 정육슬라이스 및 냉장 통오리 등 인기메뉴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홈플러스·뉴코아아울렛·롯데슈퍼·세이브존·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매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마트에서는 훈제슬라이스 제품을 기존 가격보다 40% 이상 할인된 8,400원(600g), 정육슬라이스(500g·800g)를 비롯해 냉장 통오리를 기존 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뉴코아아울렛, 롯데슈퍼, 세이브존에서는 다향오리 훈제슬라이스를 25~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였고, 홈플러스에서는 오리데이 상품으로 허브갈릭 훈제슬라이스 및 훈제바베큐를 약 30% 할인 판매했다.

이데일리

주원산오리, 제7회 우리축산물 요리경연대회 후원 및 오리고기 시식·할인판매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는 지난 5월 22일(목) 열린 NS홈쇼핑 제 7회 우리축산물 요리경연대를 후원하고, 우수한 우리축산물의 하나로 오리고기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 야외에는 주원산오리 시식부스를 마련하여 자사제품인 훈제오리와 오리군만두, 신제품인 ‘짜먹는 오리슬라이스’ 시식행사를 진행했으며, 실내에는 홍보 및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자사제품을 전시하고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주원산오리, 장학금 1,000만원 쾌척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는 지난 3월 18일 이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월·금구·상신초등학교와 이월중학교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원산오리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2001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동석 기자 [2014. 03. 18]

동아원 · Premier Nutrition 기술제휴 재협약



동아원 사료BU(대표 손병두)가 지난 5월 20일 여의도 본사 대회의장에서 영국 Premier Nutrition(프리미어 뉴트리션)과 전략적 제휴 계약을 연장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등에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원은 Premier Nutrition과의 전략적 제휴 계약체결을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지난 2012년 5월 전략적 제휴관계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초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기술제휴는 양돈과 오리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양계, Pet, 양어 및 축우 제품 등 전 축종에 확대하여 양양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 및 생산, 현장 기술지도 등 전 부분에 걸쳐 협약함으로써 글로벌 사료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로 했다. 동아원은 지난 2년간 Premier Nutrition에서 공급한 효소제, 유화제, 비타민 미네랄 등 특수원료 사용 노하우로 골격성장과 설사방지 효과가 있는 신기술 ‘슈퍼도징’을 적용한 ‘프리미어 자돈사료’를 출시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체리벨리육용오리 전용사료인 ‘청정 체리육용 1호/2호’ 공동 개발·출시하여, 2년 연속 오리사료 판매 1위로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했다.**

동아원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제휴 연장으로 양사 고객의 앞으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데 일조하게 됐다”며 “기술제휴 뿐만 아니라 영업과 마케팅에서도 역량을 강화하여 축산전문회사로서의 회사 및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